Ⅵ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노숙인(Homeless) 자립 지원 사회적기업 빅이슈(THE BIG ISSUE)의 한국판 창간을 이야기하다

2009 · 2010 기획공모 – 해외연수사업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결과보고서

사업명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노숙인(Homeless) 자립 지원 사회적기업 빅이슈(THE BIG ISSUE)의 한국판 창간을 이야기하다

· 연수팀명 **거리의천사들(비영리민간단체 거리의천사들 내 사업단 '빅이슈코리아' (서울형사회적기업)**
· 연수참가인원 **26명(빅이슈 판매사원 12인 포함)**
· 연수기간 **2010년 7월 4일~6일(3박 4일)** · 연수지역 **서울**

1. 연수목적 및 목표

■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한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빅이슈(THE BIG ISSUE)의 창립자이자 현직 대표인 존 버드(John Bird)를 초청하여 빅이슈코리아(THE BIG ISSUE KOREA)의 성공적인 창립을 도모**

·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시스템,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경험 등 전반에 관한 전문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빅이슈 잡지 판매를 통한 홈리스 일자리 지원과 자립 지원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공론화
· 빅이슈 간의 강력한 국제 협력 관계 형성 및 국내 사회적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 **한국 사회적기업의 Global Application 가능성을 모색**

· 영국 빅이슈의 성공 요인과 한국 빅이슈가 생겨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해외 우수 사회적기업이나 사업 모델에 대한 성공적인 벤치마킹 혹은 프랜차이즈 방안을 모색
· 'Think Globally, Act Locally' 를 실천에 옮기는 사회적기업가 존 버드 빅이슈 창립자의 경영 철학 및 노하우 전수

2. 참가자 명단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 및 직위	연수팀 내 역할
1	강인아	빅이슈코리아(거리의천사들 내 사업단)	문화사업국 사원	창간행사 진행, 연락담당
2	김겨레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사원	포럼및강연회 진행, 연락담당
3	김나라	빅이슈코리아	편집국 국제담당기자	수행, 통역
4	김영환	빅이슈코리아	판매국 사원	수행, 차량운전
5	박인순	빅이슈코리아	경영지원실 실장	보고서 감수
6	선나리	빅이슈코리아	편집국 디자이너	수행, 통역
7	심샛별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 국장	통역
8	안병훈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팀장	기획, 진행
9	염지환	빅이슈코리아	편집국 사진기자	사진
10	오민수	빅이슈코리아	편집국 기자	취재
11	이윤정	빅이슈코리아	편집국 기자	취재
12	진무두	빅이슈코리아	판매국장	총괄, 포럼 및 강연회 발표자
13	한보람	빅이슈코리아	판매국 사원	전야제 진행
14	허지숙	빅이슈코리아	판매국 사원	전야제 진행

* 외 빅이슈 판매사원 12인

3. 연수 전 활동

1) 1회차

일 자	2010년 6월 18일(금)~6월 25일(금)
장 소	빅이슈코리아 사무실
활동 목적	1. 공개강연회 기획의도 및 주제 선정 2. 공개강연회 섭외자(통역자 및 사회자) 선정 3. 공개강연회 준비 역할 분담 4. 공개강연회 보도 및 홍보자료 준비
참석자	· 빅이슈코리아 판매국장 진무두 ·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팀장 안병훈 ·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사원 김겨레 총 3명
활동 내용	1. 존 버드 방문에 따른 공개강연회 기획의도 및 주제 검토 ·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 씨가 국내 일반 대중에게 강연할 주제 및 내용을 검토 · 빅이슈 창립에 이르게 된 과정, 그에 수반된 다양한 경험들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대중에게 사회적기업, 빈곤문제의 공론화 시도 · 빅이슈코리아 창간호 홍보 효과 극대화 2. 공개 강연회 섭외자 선정 · 빅이슈에 대한 이해를 지닌 사회자 및 통역자 선정 3. 열린포럼 역할분담 · 1과 2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빅이슈코리아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역할을 분담, 개별 준비 시작 4. 보고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 · 언론 및 온라인 카페 등에 홍보할 자료 제작 및 홍보 리스트 작성
활동 평가	1. 빅이슈 창립자인 존 버드 씨가 방한할 것을 계기로 홈리스(노숙인)가 판매하는 잡지 '빅이슈'에 대한 소개와 기업경영에 따른 생생한 경험담을 국내 일반 대중에게 들려줌으로써 빅이슈 창간호 홍보와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내용을 구성 2. 특히 '빅이슈' 창립에 이르는 개인의 인생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하여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 3. 패널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섭외 리스트를 작성. 즉각 연락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취했음

2) 2회차

일 자	2010년 6월 18일(금)
장 소	함께일하는재단
활동 목적	1. 열린포럼 기획의도 및 주제 선정 2. 열린포럼 섭외자 선정 3. 열린포럼 역할 분담
참석자	· 함께일하는재단 명경화(열린포럼 담당자) · 함께일하는재단 국제협력팀 고은진 ·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사원 김겨레 총 3명
활동 내용	1. 존 버드 방문에 따른 열린포럼 기획의도 및 주제 검토 ·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씨가 국내 사회적기업가들에게 강연할 주제 및 내용을 검토 · 빅이슈 창립에 이르게 된 과정, 거기에 수반된 다양한 경험들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생생한 시사점을 던져주기를 기대 2. 열린포럼 패널 후보 선정 · 존 버드 씨의 강연 내용과 더불어서 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례를 병치하여 양국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섭외자를 선정 · 빅이슈가 지향하는 빈곤문제 해결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비평과, 한국 사회로의 적용가능성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 ·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빅이슈코리아의 특징을 영국과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 3. 열린포럼 역할분담 · 1과 2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함께일하는재단 팀과 빅이슈코리아 팀이 역할을 분담, 본격적인 강연회 추진 준비에 들어감
활동 평가	1. 빅이슈 창립자인 존 버드 씨가 방한할 것을 계기로 노숙인이 판매하는 잡지 '빅이슈'에 대한 소개와 기업경영에 따른 생생한 경험담을 국내 사회적기업가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사회적기업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 2. 특히 '빅이슈' 창립에 이르는 개인의 인생 이야기를 넘어 비즈니스로서의 '빅이슈'에 대한 통찰(Insight)을 강연을 통해 제시할 수 있도록 배려. 패널 발표자들은 그것에 대한 한국적인 통찰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상호발전적인 강연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음 3. 패널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섭외 리스트를 작성. 즉각 연락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취했음

3) 3회차

일 자	2010년 6월 18일(금)~7월 2일(금)
장 소	빅이슈코리아 사무실
활동 목적	1. 빅이슈 창간전야제 '빅나잇'을 운영해나갈 서포터즈 사전 오리엔테이션 2. 창간전야제 행사 프로그램 연습(플래시몹 등)
참석자	·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사원 강인아 · 빅이슈코리아 서포터즈(김세영, 김선미, 박선주, 이슬기, 오수지) 총 6인
활동 내용	1. 서울형 사회적기업 빅이슈코리아에 관한 소개 · 서울형 사회적기업인 빅이슈코리아의 운영방식과 목적, 가치 전달 2. 빅이슈 창간전야제 빅나잇을 운여해나갈 서포터즈 사전 오리엔테이션 · 7월 5일 행사당일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플래시몹, 인디밴드 공연, 거리 퍼레이드, 거리 홍보 등) ·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배정 및 교육 전야제 행사 당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플래시몹, 인디밴드 공연, 거리 프레이드 등)의 목적과 내용을 사전 교육하고 업무를 배정 · 플래시몹(거리 퍼포먼스) 연습
활동 평가	1. 약 20명 정도의 참석인원을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참석률이 저조 일정 공지를 좀 더 일찍 하여 서포터즈 분들이 시간을 조절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 2. 참석한 서포터즈 분들에 대한 교육은 대체로 잘 이루어졌음 3. 현장으로 가서 직접 행사장 동선을 파악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

4. 연수 일정

날 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7월 4일(일요일)	인사동 길&쌈지길(창간 전야제)	· 시간: 15시~20시 · 장소: 인사동 길, 쌈지길 · 내용: 거리 퍼레이드, 플레시몹, 빅이슈 소개, 존 버드 인사, 빅이슈 판매사원 인사, 홍대 인디밴드 공연 · 참석: 초청자 빅이슈 영국 대표 존 버드 및 빅이슈 판매사원, 빅이슈코리아 직원, 빅이슈코리아 서포터즈, 홍대 인디밴드 5팀
7월 5일(월요일)	▷ 창간기념 행사 서울시청(창간 행사&서울 시장 창간 축하, 오세훈 서울시장 참가)	· 시간: 10시 15분~10시 45분 · 장소: 서울시 서소문 청사 9층 간부회의실(접견실) · 내용: 오세훈 서울시장과 존 버드 및 빅이슈코리아 대표단과의 미팅(오세훈 서울시장 창간 축하 Photo Press 행사) ·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 및 초청자 빅이슈 영국 대표 존 버드(John Bird), 빅이슈코리아 대표단, 관계자
	▷ 창간기념 행사 덕수궁 대한문 앞 (창간 행사&창간 발대식, 복지국장 참가)	· 시간: 10시 45분~11시 · 장소: 덕수궁 대한문 앞(창간 발대식 Photo Press 행사) · 내용: 창간 발대식 · 참석: 서울시 복지국장 및 초청자 빅이슈 영국 대표 존 버드(John Bird), 빅이슈 판매사원, 빅이슈코리아 직원, 빅이슈코리아 서포터즈, 관계자
	사회공동복지모금회(공개강연회)	· 시간: 15시~18시 · 장소: 공동복지모금회(사랑의열매) 지하 강당 · 내용: 빅이슈 창립자&현 대표 존 버드가 말하는 '빅이슈' · 참석: 초청자 빅이슈 영국 대표 존 버드, 홈리스(노숙인) 관련단체 및 일반 대중 등
7월 6일(화요일)	빅이슈코리아(내부 미팅)	· 시간: 10시~13시 · 장소: 빅이슈코리아 · 내용: 빅이슈의 운영 노하우 전수 및 빅이슈코리아의 발전 방향성 논의, 글로벌 연대 강화 · 참석: 초청자 빅이슈 영국 대표 존 버드, 빅이슈코리아 직원
	빅이슈코리아(내부 미팅)	· 시간: 15시~18시 · 장소: 함께일하는재단 지하 강당 · 내용: 〈The Big Issue〉를 통해 본 사회적기업의 Global Application에 관한 이야기 · 참석: 초청자 빅이슈 영국 대표 존 버드 및 사회적기업 (사)청소년아이프렌드 장용석 대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 소장, 진무두 빅이슈코리아 판매국장, 사회적기업가, 홈리스(노숙인) 관련단체, 일반 대중 등

5. 방문국의 사회적기업 현황

1)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해외초청연수 초청자 소개

■ 존 버드(John Bird) 영국제국훈장 MBE 수훈자이자 〈빅이슈〉의 창립자 겸 편집장

"비즈니스를 사회 변혁의 도구로 사용한 걸출한 기록으로 귀감이 되는 사업가, 존 버드는 사회 이슈와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하나의 독창적이고 권위 있는 목소리다."

■ 줄리앙 리처(Julian Richer) 기업가 겸 작가

존 버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고, 수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다. 존 버드의 인생 여정에는 절도범, 죄수, 예술가, 시인과 같은 이름들이 있었다. 지금은 성공한 상식파괴자이자 사회운동가, 출판인인 존 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트리트매거진 〈빅이슈〉의 숨은 힘이다. 그는 비즈니스를 사회적 변혁의 도구로 사용한 눈에 띄는 이력으로 귀감이 되는 사업가다. 현재 61세, 최근 3번째로 재혼하였고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화두가 사업가와 소비자들 사이에 처음 떠올랐을 때, 존 버드는 사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 강력하고 신선한 접근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경험과 혈기왕성한 성격, 박학다식하고 예리한 시각은 존 버드를 강력하면서도 재미있는 연설가로 만들었다. 존 버드는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나이로비와 이스탄불, 런던의 다우닝 스트리트와 버킹엄궁전에서도 연설한 바 있다. UN 명예상, 영국 제국 훈장, 2005년과 2006년 창의적 봉사로 받은 비콘상은 그가 받은 수많은 상과 영예의 일부일 뿐이다. 1991년 고든 로딕과 함께 〈빅이슈〉를 창립한 이후, 〈빅이슈〉가 영국의 가장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까지 뻗어나가며 세계의 수많은 홈리스를 돕는 것을 지켜봤다. 펭귄출판사에서 펴낸 자서전 〈약간의 행운(Some Luck)〉은 가난하고 버림받았던 삶에 대항해 어떻게 싸워 이겨냈는지를 담았다. 2007년 3월 존 버드가 '퀵리드(Quick Reads)'라는 독서 운동 캠페인에 참가해 쓴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방법(How To Change Your Life In 7 Steps)〉(랜덤하우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 수상이력

· 영국 제국 훈장(MBE)
· 마커스 모리스상
· 2001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 명예학위
· 2000 영국 정기간행물 출판 문화협회 올해의 출판인상
· 2000 리버풀 존 무어 대학교 명예학위
· 1995, 1998, 2000 영국 인종차별방지위원회 인종평등미디어상
· 2000 국제기자연맹상
· 1998 올해의 저널리스트상
· 1996 UN 해비타트상, 세계 100대 사회적기업가로 선정
· 1995 환경 보호상
· 1993 영국잡지편집자협회 올해의 편집자상
· 2004 BBC 투표 '런던의 살아 있는 전설'

■ 존 버드가 말하는 존 버드

내 이름은 존 버드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 〈빅이슈〉를 만들어 영국 제국 훈장을 받았다. 현재 빅이슈 잡지는 전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나는 미국 LA 시내의 시청, 영국의 감옥, 영국의 상원과 하원, 영국의 수상 관저에서 연설한 경험이 있다. 여왕과 왕자, 유명 연예인과 축구 선수, 국가 대사들 앞에서 연설했다. 런던 경찰국과 UN, 로터리 클럽, 지역 청사에서 연설했다. 마가렛 대처와 노먼 테빗부터 제시 잭슨과 셸사의 전 경영자 로드 무디 스튜어트에 이르는 세계 리더들과 이야기했다.
런던 남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스웨덴 은행원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나는 명확하고 강하게 말하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의 메시지는 동기부여와 리더십, 경영, 시행착오, 거절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일에 대한 것이다. 나는 홈리스였고 범죄자였고 중독자였다.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 많은 특혜를 갖고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깨닫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 존 버드가 말하는 리더십

나는 항상 경영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무엇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지에 대해 연구했고 다양한 청중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연설을 했다. 많은 성공한 리더들을 만났고 그들 중 일부는 친구가 되었다. 나 또한 좋은 리더라고 불리고 있다.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빅이슈〉를 지켜오는 것은 분명히 나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지금 〈빅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은 〈빅이슈〉를 이끄는 능력에 대한 증거이다. 나의 삶은 리더십과 다른 이들에게 리더십을 갖도록 영감을 주는 일로 가득 차 있다. 그 리더십이 그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는 정도라고 해도 말이다. 새로운 리더를 만들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나의 리더십 스타일은 참여하고, 질문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영감을 주는 것이다.
내 인생 이야기와 경험이 영감을 줄 만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과 겪은 것들, 그리고 내가 가본 곳들 모두는 지금도 나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당신 역할에 리더십을 부여하는 것은 해볼 만한 시도다. 나쁜 리더는 조직 전체는 물론 국가까지도 망칠 수 있다. 위대한 리더들이 주변에서 더 잘하도록 영감을 준다 해도 말이다. 위대한 리더들은 평범한 사업이나 조직을 특별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성공적인 리더십은 성공을 낳는다.

2) 초청자의 단체 소개

* 2008+2009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도 '빅이슈' 소개가 나와 있기에 간단히 요약 정리

■ 빅이슈 The Big Issue

1991년 영국, 바디샵(The Body Shop)의 공동 창업자 고든 로딕(Gorden Roddick)과 현 영국 빅이슈 대표인 존 버드(John Bird) 의해 창간된 대중문화잡지이다. 빅이슈는 홈리스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계기를 주고자 하는 스트리트 페이퍼(Street Paper)의 대표 저널이다. 자선단

체가 아니라, 잡지 발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윤을 창출, 이를 재투자하여 사회적 혜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 9개 국가(영국, 호주, 일본, 남아공, 케냐, 나미비아, 잠비아, 대만, 한국) 15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간 발행 부수가 약 14만 부(ABC, 2009)에 달하는 유력지이며, 일본에서는 격주간으로 약 3만 부(월 6만 부)가 발행된다.

6. 방문기관분석

1) 7월 4일 빅이슈코리아 창간 전야제 '빅나잇'(THE BIG NIGHT)

연수일자	2010년 7월 4일(일)
주요내용	창간을 알리는 전야제 행사(이벤트&캠페인성)
방문목적	빅이슈코리아(빅이슈 한국판) 창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다. 초청자 존 버드와 직접적 수혜대상인 예비 빅이슈 판매사원(홈리스), 재능기부자들, 서포터즈, 빅이슈코리아 직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신명나는 장을 마련하여 그 속에서 빅이슈의 가치를 공유한다.
진행 담당자	·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팀장: 안병훈, 사원: 강인아
홈페이지	· 한국: www.bigissue.kr · 영국: www.bigissue.com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86번지 2층 · Tel. 02-766-1115 · Fax. 02-711-1125 안병훈: why@bigissue.kr / 강인아: akang@bigissue.kr

■ 연수내용

1) 창간 전야제 개요

· 일시: 7월 4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플레시몹 오후 4시부터)

· 장소: 인사동 길, 쌈지길

2) 창간 전야제 일정

·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14:00~15:00 · 장소: 인사동 남인사마당
2차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플래시몹 연습과, 퍼레이드를 위한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 거리홍보- 15:00~16:00 · 장소: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서포터즈를 총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를 돌며 빅이슈코리아를 홍보하였다. 빅이슈 단체티를 입고, 부채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며 빅이슈를 홍보하였다. 15명의 서포터즈들이 2팀으로 나누어,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서 홍보퍼레이드를 함. 부채와 플라이어를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구호를 외침.

· 거리 퍼레이드- 시간: 16:00~16:50 · 장소: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빅이슈 서포터즈와 타악그룹 라퍼커션이 빅이슈 현수막을 들고, 부채를 나눠주며 인사동 길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뮤지션 20명이 대열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남인사마당에서 쌈지길 방향으로 진행하면, 약 20명의 서포터즈들은 악기의 리듬에 맞춰 간단한 구호와 율동을 하였다. 퍼레이드 중 부채와 플라이어 나눠주면서 빅나잇 행사를 알리고 빅이슈의 취지를 알렸다.
소요시간 : 50분, 참가팀: 타악그룹 라퍼커션

· 플래시몹- 시간: 17:10~17:15 · 장소: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쌈지길 앞
30명의 인원이 플래시몹을 진행하였다. 컨셉은 '핸즈업'을 주제로 한 댄스퍼포먼스
사람으로 붐비는 인사동 길 한복판에서 신나는 춤판이 벌어졌다. 쌈지길 공연장에서 5시10분에 음악이 울리면, 지나가던 행인(서포터즈)들이 손뼉을 치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약 2분간의 플래시몹을 마치고 춤을 추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Not a hand out, But hand up!' 이라는 빅이슈의 구호에 걸맞게, 손동작을 강조하는 플래시몹을 한다.
소요시간: 약 2분

· 인디밴드공연- 시간: 18:00~19:40 · 장소: 인사동 쌈지길
18:00~18:20: 파티스트릿(4명- 어쿠스틱밴드)
18:20~18:40: 낭만유랑악단(2명-어쿠스틱밴드)
18:40~19:00: 김승미(솔로 어쿠스틱 뮤지션)
19:00~19:20: 일단은준석이들(2명-어쿠스틱밴드)
19:20~19:40: 드라이플라워(5명-어쿠스틱밴드)
리허설은 공연 전에 약 30분간 이루어졌고, 공연과 공연 사이에는 공연팀 소개, 빅이슈 소개, 존버드 축사, 빅판 소개 등이 있었고, 진행은 매끄럽게 잘 이어졌다.

■ 시사점

전야제 행사를 통해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홈리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홈리스는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무섭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숨기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건강한 방향으로 홈리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을 사회에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되어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었다.

· 단체사진

2) 7월 5일 창간 기념행사

연수일자	2010년 7월 5일(월) · 1부: 10시 15분~10시 45분 · 2부: 10시 45분~11시
주요내용	· 1부: 오세훈 서울시장과 존 버드 및 빅이슈코리아 대표단과의 미팅 (오세훈 서울시장 창간 축하 Photo Press 행사) · 2부: 빅이슈 창간 및 판매사원 발대식(창간 발대식 Photo Press 행사)
목적(기회의도)	7월 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빅이슈코리아 창간 기념행사가 열린다. · 1부: 빅이슈 창립자이자 공동대표인 존 버드가 일일 빅이슈 판매사원으로 빅이슈 창간호 판매에 나서고,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시민을 대표해 첫 번째로 구매함으로써 빅이슈코리아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한다. · 2부: 존 버드와 빅이슈 판매사원, 서울시 복지국장, 빅이슈코리아 관계자, 빅이슈코리아 서포터즈가 참여하는 '빅이슈코리아 창간 및 판매사원 발대식'을 통해 한국사회에 빅이슈코리아의 창간을 공론화하고 빅이슈 판매사원들의 판매의 시작을 알린다.
담당자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팀장: 안병훈, 사원: 김겨레, 강인아
홈페이지	· 한국: www.bigissue.kr · 영국: www.bigissue.com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86번지 2층 · Tel. 02-766-1115 · Fax. 02-711-1125 · 안병훈: why@bigissue.kr · 김겨레: gyurae1@bigissue.kr · 강인아: akang@bigissue.kr

■ 연수내용

1) 창간 기념 행사: 포토 세션 창간 세레모니

· 일시: 7월 5일(월)
1부 오전 10시 15분~10시 45분(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7층 간부회의실, 오세훈 서울시장 참석)
2부 10시 45분~11시(대한문 앞)
· 장소: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7층 간부회의실, 덕수궁 대한문 앞(빅이슈 판매사원 발대식)
· 주요 참석자: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 오세훈 서울 시장 및 관계자 등

■ 시사점

MBC 9시 뉴스, SBS 8시 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일보, 경인방송, 노컷뉴스 등 주요 언론 방송사들을 통해 빅이슈코리아의 창간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공모사업을 통해 방한한 존 버드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복지부장 등이 빅이슈코리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했으며, 각 언론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빅이슈코리아 창간을 보도했다.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의 방한과 맞춰 진행된 빅이슈코리아 창간 기념행사는 빅이슈코리아의 일자리를 통한 홈리스 자립에 대한 가치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 오세훈 서울 시장이 존 버드로 부터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빅이슈 첫호를 구매하고 있다.

3) 7월 5일 존 버드 공개강연회

연수일자	2010년 7월 5일(월)
연수장소	사회공동복지모금회(사랑의열매) 지하 강당
주요내용	The Big Issue대표 John Bird 초청 공개 강연회 '존 버드, 빅이슈를 말하다'
목적(기회의도)	홈리스를 수익창출을 위한 파트너로 전환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 모델의 새 지평을 연 영국의 세계적 사회적기업 《Big Issue》. 이번에 홈리스에서 《Big Issue》를 이끄는 사회적기업가로의 인생역전 길을 걷고 있는 John Bird가 한국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홈리스였던 그가 빅이슈를 창립하고 세계적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과정, 그리고 빈곤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본다.
담당자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팀장: 안병훈, 사원: 김겨레
홈페이지	· 한국: www.bigissue.kr · 영국: www.bigissue.com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86번지 2층 · Tel. 02-766-1115 · Fax. 02-711-1125 · 안병훈: why@bigissue.kr · 김겨레: gyurae1@bigissue.kr

■ 연수내용

1) 공개 강연회 개요

· 일시: 2010년 7월 5일(월) 오후 3시~6시 · 장소: 공동복지모금회(사랑의열매) 대강당
· 주최: Big Issue Korea · 협력: 함께일하는재단 · 후원: SK

2) 공개 강연회 일정

구분	시간	내용
개회 및 축사	15:10~15:20	사회 인사 및 존 버드 소개(사회: 안태호) 예술과 도시 사회 연구소(통역: 김명희)
빅이슈코리아 소개	15:20~15:40	빅이슈코리아 판매국국장(발표: 진무두)
공개강연	15:40~16:50 (순차통역 포함)	주제: 존 버드 빅이슈를 말하다 (발표: 존 버드, 통역: 김명희)
질의 응답	16:50~17:10	
폐 회	17:10~17:15	

존 버드 씨의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빅이슈코리아 발행인인 안기성 목사의 축사에 이어 진무두 빅이슈코리아 판매국장에 의해 빅이슈코리아 창간에 따른 간략한 소개 연설이 이어졌다. 존 버드 씨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동 보호시설에서 자랐고, 수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다. 홈리스 경험도 있는 존 버드 씨의 인생 여정에는 절도범, 죄수, 예술가, 시인과 같은 이름들이 있었다. 지금은 성공한 사회적기업가이자 사회운동가, 출판인이기도 한 그는 빅이슈의 지주이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온 존 버드 씨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이력은 뭐니 뭐니 해도 비즈니스를 사회적 변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화두가 소비자들 사이에 처음으로 떠올랐을 때 존 버드 씨는 사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 강력하고 신선한 접근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경험과 혈기왕성한 성격, 박학다식하고 예리한 시각은 존 버드 씨를 강력하면서도 재미있는 연설가로 알려지게 했으며, 이번 강연회도 마치 그의 쇼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성공적인 연설을 들려주었다.

1991년 고든 로딕과 함께 '빅이슈'를 창립한 이후, 영국의 가장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일본과 한국으로까지 확장되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홈리스들을 돕고 있다. 존 버드 씨는 자신이 걸어온 위와 같은 여정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빅이슈'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마음까지, 스스럼없이 털어내었으며 관중들은 그의 열정적인 무대 매너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시종일관 계속되었다. 눈길을 끈 것은 빅이슈 판매사원인 권일혁 씨도 본 강연회에 참석하고, 질의응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이다. 그와 존 버드 씨의 열띤 토론으로 인해 빅이슈의 맹목적인 확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지에 맞게 지역화시키는 데에 성공할 수 있는가가 결국 빅이슈코리아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 시사점

· 빅이슈가 영국에서 태어난 배경
· 성공적인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구체적인 사례
· 빅이슈의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의 확산을 지향하되 적절한 현지화에 따른 Glocalization (Globalization+Localization)을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 비즈니스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회적기업가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빅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번 포럼이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 사회적기업 날개달아주기 공모 사업으로 초청 방한한 존 버드는 빅이슈코리아의 창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었다.

4) 7월 6일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 빅이슈코리아 내방

연수일자	2010년 7월 6일(화)
주요내용	빅이슈의 운영 노하우 전수 및 빅이슈코리아의 발전 방향성 논의, 글로벌 연대 강화
목적(기회의도)	존 버드 씨가 빅이슈코리아에 내방하는 것을 계기로 실무자들과의 미팅을 갖고, 빅이슈코리아의 현황, 방향성에 대한 실무적인 미팅을 가질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빅이슈코리아 사원들과 존 버드 씨와의 친목을 도모하여 빅이슈와 빅이슈코리아 간의 연대 강화를 위한 계기로도 상정하였다.
담당자	빅이슈코리아 문화사업국 사원: 김겨레
홈페이지	· 한국: www.bigissue.kr · 영국: www.bigissue.com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86번지 2층 · Tel. 02-766-1115 · Fax. 02-711-1125 · 김겨레: gyurae1@bigissue.kr

■ 연수내용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빅이슈코리아의 현황과 방향성, 나아가 빅이슈 영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 특히 빅이슈코리아가 판매사원 숫자와 각각의 활동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이 존 버드의 주목을 끌었다. 숫자와 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빅이슈코리아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빅이슈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빅이슈 판매사원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노숙인을 차별하여 구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존 버드 씨의 의문에 대해서 빅이슈코리아 측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자립 방안을 모색한다는 대답을 하였다. 나아가 편집국 국원들을 중심으로 광고 표지, 삽입 사진에 대한 선택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세히 이뤄졌다. 존 버드 씨에 따르면 빅이슈는 엄연한 비즈니스를 위한 잡지이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끌 만한 소재를 우선적으로 골라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어로 만들어진 문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편집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적인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겠다.) 1977년 일반인쇄소를 노협으로 변환하면서 주로 지자체,

민간단체 등을 고객으로 인쇄, 웹, 디자인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직접가서 보았을 때, 환경관련, 사회문제 관련한 포스터제작 및 책인쇄 등이 많이 보였다.

■ **시사점**

1) 노숙인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2) 편집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

· 존 버드는 자신의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아낌 없이 빅이슈코리아와 공유하였다.
판매국 사무실에서 진행된 존 버드 내방 미팅

5) 7월 6일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가 열린포럼 The Big Issue 대표 John Bird 초청 포럼

연수일자	2010년 7월 6일(화)
주요내용	제2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_ The Big Issue 대표 John Bird 초청 포럼 잘 키운 사회적기업 하나, 열 나라 바꾼다!! 〈The Big Issue〉를 통해 본 사회적기업의 Global Application에 관한 이야기
목적(기회의도)	사회 문제를 기업적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업가. 그 과정에 있어 사회적기업가들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끊임없이 고민한다. 때문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가마다 그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업 모델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프랜차이즈'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이 있으니. 바로 영국의 〈The Big Issue〉가 그 훌륭한 사례이다. 자선단체의 기부가 아닌, 잡지 발행과 노숙인 판매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윤을 창출, 이를 통해 5,000여 명의 노숙인을 자립시킨 영국의 빅이슈는 노숙인 자활에 있어 새로운 사업 모델의 지평을 열었다. 영국 빅이슈가 노숙인 자활에 성공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각국의 사회적기업가들이 자국의 빅이슈 아이디어를 도입, 현재 호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9개국 15개 지역판에서 영국 빅이슈에 등록을 한 뒤 자국판 빅이슈를 판매하고 있다. 빅이슈의 영향으로 생겨나고 구축된 스트리트 페이퍼는 전 세계 37개국 108종(2010년 7월 기준)이 존재하며, 이들의 정보와 기사 공유 등의 긴밀한 네트워크(INSP: International Street Paper Network, 세계 홈리스 자립 지원 신문잡지 협회, www.street-papers.org)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예비 구독자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08년 10월부터 빅이슈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을 맺어 지난 5월 영국 빅이슈와 MOU를 체결하였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빅이슈 창간 준비호가 발행되었다. 이번 21차 열린포럼에서는 7월 5일 빅이슈코리아의 창간호가 발행되는 것을 기념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John Bird)에게 한국 사회적기업가들에게 그 자신이 홈리스(노숙인)에서 사회적기업가 된 과정과 사업에 대한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영국 빅이슈의 성공 요인과 한국 빅이슈가 생겨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해외 우수 사회적기업이나 사업모델에 대한 성공적인 벤치마킹 혹은 프랜차이즈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실천에 옮기는 영국 사회적기업가의 이야기와 한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적기업의 Global Application 가능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담당자	함께일하는재단 명경화
홈페이지	· 함께일하는재단: www.hamkke.org · 빅이슈코리아: 한국: www.bigissue.kr, 영국: www.bigissue.com
주소 및 연락처	· 함께일하는재단: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함께일하는재단 6층 Tel. 02-338-0019 Fax. 02-338-3995, 명경화 hamkke@hamkke.org · 빅이슈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86번지 2층 Tel. 02-766-1115 Fax. 02-711-1125, 김겨레 hamkke@hamkke.org

■ **연수내용**

1) 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0년 7월 6일(화) 오후 3시~6시 함께일하는재단 지하 교육장
· 주최: 함께일하는재단 · 협력: Big Issue Korea · 후원: SK,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포럼 일정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4:30~15:00 15:00~15:10	접수 인사말 및 소개
사례발표	15:10~15:30	한국 Big Issue,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보다 (발표: 진무두_ Big Issue Korea 판매국장)
	15:30~15:00	노숙인에서 성공한 사회적기업의 대표가 된 John Bird의 〈Big Issue〉 이야기 (발표: John Bird_ 영국 Big Issue 창립자 · 대표)
	17:00~17:20	사회적기업 (사)청소년아이프렌드, 해외 우수 프로그램 국내 사회적기업으로의 도입(발표: 장용석 대표)
패널토론	17:20~517:40	빈곤 계층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영국 Big Issue의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 이원재_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질의응답	17:40~17:50	floor 발언 및 질의응답
폐 회	17:50~18:00	폐 회

제21차 사회적기업 열린 포럼은 국내의 사회적기업가 및 전문가(빅이슈코리아의 진무두 판매국장, 청소년아리프렌드의 장용석 대표,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이원재 소장)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Global Application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음.(이하 순서대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존 버드 씨 강연 요약

▷ 선보다도 자활이 필요: 홈리스(Homeless, 노숙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이 아니라 자활이라는 생각으로 화장품 회사 바디샵 대표인 고든 로딕의 도움 아래 1991년에 빅이슈를 창립한 존 버드. 그는 품질 좋은 잡지를 만들어 발행하고, 홈리스들이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면 자립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홈리스 스스로가 '소셜 모빌리티'로 사회적 기능을 갖추는 일이 최선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당시 생소했던 이른바 '사회적기업'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잡지는 공짜로도, 너무 비싼 값에도 팔지 않을 것. 홈리스의 자활이 왜 중요한지 정부와 시민을 상대로 끊임없이 알릴 것. 사업은 철저히 비즈니스 원칙을 지키며 진행할 것. 이 세 가지가 주된 원칙이다.

▷ 교육이라는 사회적 운동: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 운동을 펼쳐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대중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기회를 주고 의존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시키며 홈리스에 대한 인식변환을 꾸준히 시도하였다. 둘째, 홈리스를 교육시키는 일이다. 폭력과 절도 행각의 이미지가 다분했던 홈리스들에게 자립하는 삶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셋째, 정부를 교육시키는 일이다. 복지란 이름으로 수장을 지급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이익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 빅이슈의 시스템: 사회적기업 '빅이슈'가 지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즉 먼저 홈리스가 찾아오면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그들이 판매 능력을 갖추면 기존 판매자들의 지원 아래 판매를 시작한다. 빅이슈는 잡지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은 스스로 잡지 판매 능력을 기른다. 이는 여느 사업과도 마찬가지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 빅이슈의 성공요인: 물론 위와 같은 의도와 체계를 갖춘 빅이슈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엔 많은 손실을 내었고, 직원들의 업무량을 두 배로 늘리며 월간지를 격주간지로 바꿨다. 결과적으로 한 달에 2만 5천 파운드의 손해를 보고 있었던 사업이 창업 1년 만에 연 평균 100만 파운드에 이르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빅이슈'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성공적인 모델임이 실질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존 버드는 이러한 빅이슈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점, 둘째,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상품을 제공했다는 점, 셋째, 다른 비즈니스와 똑같은 사업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와 같은 요인을 조합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빅이슈의 성공을 지탱했음을 굳건히 믿는다.

▷ 한국 빅이슈에 대한 제언: 그는 빅이슈의 성공모델을 그대로 각 나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많은 스트리트페이퍼가 '빅이슈' 성공모델을 가져와 잡지만 내면 성공한다고 믿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Localization)임을 잊으면 안 된다. 지역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역 독자에게 유용한 잡지를 제공해야 판매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을 잘못 가져와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패널 토론 내용 정리

▷ 교육이라는 사회적 운동: 영국 빅이슈와는 다르게 빅이슈코리아만의 차별성이 있다. 첫째, 예비독자층이 미리 자발적으로 모여(온라인 모임) 그 결과로 사회적기업화가 이룩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빅이슈 판매사원의 수를 제한했으며 활동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셋째, 판매사원 1명, 청년 1명, 세계적인 재능기부자 1명으로 구성된 '삼겹즐 비즈니스'라는 빅이슈코리아의 자립지원 모델인 협업시스템을 형성해나간다는 점이다.

▷ 교육이라는 사회적 운동: 우리나라에 창의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하여 사업화한 미국의 창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음. 장용석 대표는, 단체에서 진행한 CAP(Community Arts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예술대학 CalArts의 학생들이 LA 지역 내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밝힘.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있어 한국의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환경이 가장 큰 장벽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창의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와 기술이 부족하고 현재 창의교육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인식하여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려 노력해온 점을 강조. 나아가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에서 (사)청소년아이프렌드의 사업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가들이 단순히 사업 아이템으로 승부하려 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

▷ 교육이라는 사회적 운동: 지식산업의 경우 브랜드, 노하우, 컨텐츠가 관건인데 글로벌 라이센싱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빅이슈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나아가 사회적기업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생기는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임.

■ 시사점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구출은 소셜 모빌리티(Social Mobility) 기능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의 견실화가 중요하며, 영국 빅이슈는 그것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 빅이슈의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의 확산을 지향하되 적절한 현지화에 따른 Glocalization (Globalization+Localization)을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회적기업가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빅이슈를 중심으로 한 포럼이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 존 버드의 발표를 듣고 있는 참석자들

7. 연수 일지(일자별로 시간대별로 기록함)

1) 2010년 7월 4일(일요일)

■ 방문기관(연수내용)

창간 전야제 '빅나잇(THE BIG NIGHT)' · 장소: 인사동 남인사마당, 전통문화거리, 쌈지길

■ 내용

창간 전야제 '빅나잇(THE BIG NIGHT)'

■ 소감

빅이슈코리아의 창간을 알리고, 홈리스 출신의 빅이슈 판매사원 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창간전야제 'THE BIG NIGHT'을 기획, 진행하면서 빅이슈 판매사원 및 홈리스(Homeless, 노숙인)에 대해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야제 행사를 통해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많은 사람들과 언론매체가 빅이슈코리아와 홈리스에 대해 조명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홈리스 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그들의 자립을 건강한 시선으로 응원할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2) 2010년 7월 5일(월요일)

■ 방문기관(연수내용)

· 빅이슈 창간 기념행사
·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 공개 강연회 '빅이슈를 말하다'

■ 내용

· 빅이슈 창간 기념행사(서울시장 접견 축하 인사, 창간&빅이슈 판매사원 발대식)
· 공개 강연회

■ 소감

오전 9시 40분 서울 시청 서소문 청사 로비에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 빅이슈코리아 발행인을 비롯한 대표단, 서울시 복지국장 등이 모였다. MBC, SBS 등등 방송사들의 카메라가 눈에 띈다. 저녁 뉴스 타임에 방송될 촬영을 위해서다. 대상은 바로 빅이슈코리아 창간 축하를 위해 모인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견이 이루어졌다. 오세훈 시장과 존 버드, 빅이슈코리아 대표단이 빅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뒤 포토 앵글 세리머니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블로그에 빅이슈코리아에 대한 소개 글을 올리는 등 앞으로 진행될 빅이슈코리아 사업 지원을 공개적으로 매체를 통해

약속했다. 서울시장과의 접견 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빅이슈 판매사원들과 서울시 복지국장, 빅이슈코리아 관계자 및 서포터즈 들이 함께 모여 창간을 알리는 발대식이 열렸다. 다 함께 "우리는 일하는 중입니다. 빅이슈코리아!"를 외치며 빅이슈코리아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빅이슈 판매사원들은 각자의 판매지로 이동하여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첫날부터 많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여준 관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성공적으로 빅이슈의 창간을 알릴 수 있었다. 오후 3시부터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서 진행된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의 공개 강연회에서는 총 50명 정도의 관객(일반기업 사원, 대학생, 사회적기업가, 재단직원 등)이 참가하여 열린 본 강연회에서는 빅이슈의 탄생 배경과 그것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직 생소한 사회적기업가가 이상과 비즈니스 감각을 지녀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직접 들음으로써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했다. 그러므로 현재 현장에서 활약하는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나아가 '빅이슈'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강연회의 기획의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취재진들도 참석한 덕분에 빅이슈코리아 자체의 홍보역할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에 유연하게 시간을 연장해준 덕분에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해졌으며 유익한 지식 생산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2010년 7월 6일(화요일)

■ 방문기관(연수내용)

·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의 빅이슈코리아 내방 & 미팅

· 제 2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_ The Big Issue 대표 John Bird 초청 포럼
잘 키운 사회적기업 하나, 열 나라 바꾼다!!
〈The Big Issue〉를 통해 본 사회적기업의 Global Application에 관한 이야기

■ 내용

· 사회적기업가 열린 포럼

·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의 빅이슈코리아 내방 & 미팅

■ 소감

가벼운 자리였으나 진지하게 토론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존 버드와 사원들이 지닌 빅이슈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등의 공동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 기회에는 일방적으로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 상호보완적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빅이슈코리아가 노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총 70명 정도의 관객(일반기업 사원, 대학생, 사회적기업가, 재단직원 등)이 참가하여 열린 본 포럼은 빅이슈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한국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현지화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존 버드 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 빅이슈의 차별화 전략 사례, 사회적 목적성 추구를 상기하는 주장, 등이 적절히 조화된 이번 포럼은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한국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8. 연수 후 활동 평가

1) 연수활용 결과 평가

· 초청자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 방한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공모 사업에 참여할 당시만 해도 비영리민간단체 거리의 천사들 내 사업단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한 상태였다. 날개 달아주기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많은 일이 진행되었다. 영국 빅이슈와 M.O.U를 체결했으며,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로부터 창간 시 국내 방문의 약속받았다. 또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지정되었다.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INSP(세계 홈리스 자립지원 신문 잡지 협회)에 준회원으로 참가하여 세계 스트리트 페이퍼의 운영 노하우와 경영 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 노르웨이, 잠비아 등 15개국과의 긴밀할 협조를 요하는 M.O.U도 체결하였고, 아시아지역 스트리트페이퍼 네트워크(빅이슈 일본, 빅이슈 호주, 지프니(필리핀))도 결성했다. 창간 준비호도 발행하였으며, 3인으로 시작했던 사업단의 규모도 상근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성공을 자신하였지만, 이러한 많은 발전에도 한국 사회에 '빅이슈'가 창간되었을 때에 얼마나 알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무엇인가 필요했고,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의 방한이 결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빅이슈코리아에는 굉장한 멋진 날개가 되었다.

· 빅이슈코리아 창간 전야제 'THE BIG NIGHT'

창간 전야제 행사는 주말, 인사동이라는 시간적, 장소적 특징을 살려 행사를 인사동 길과 쌈지길 두 곳으로 집중시켜 관객들이 지속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제작한 부채, 티셔츠, 플라이어 등을 이용해 지나가던 행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대규모의 거리 퍼레이드로 홍보와 집객효과를 높였다. 신명나는 공연 캠페인을 통해 빅이슈코리아 창간을 알리고, 빅이슈 판매사원들을 감동시킨다는 초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 공개강연회

공개 강연회는 총 50명 정도의 관객(일반기업 사원, 대학생, 사회적기업가, 재단직원 등)이 참가하여 열린 본 강연회에서는 빅이슈의 탄생 배경과 그것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직 생소한 사회적기업가가 이상과 비즈니스 감각을 지녀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직접 들음으로써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했다. 그러므로 현재 현장에서 활약하는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나아가 '빅이슈'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강연회의 기획의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취재

진들도 참석한 덕분에 빅이슈코리아 자체의 홍보역할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에 유연하게 시간을 연장해준 덕분에 심도있는 토론이 가능해졌으며 유익한 지식 생산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준비 단계에서 홍보자료를 미리 작성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홍보 전략을 세웠을 필요가 있었다.

·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 빅이슈코리아 사무실 내방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빅이슈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점은 유익했다. 특히 편집방향성에 대한 존 버드 씨의 경험적인 조언은 앞으로 빅이슈코리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영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 영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한 재인식이 가능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빅이슈코리아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가 열린포럼 존 버드 초청

총 70명 정도의 관객(일반기업 사원, 대학생, 사회적기업가, 재단직원 등)이 참가하여 열린 본 포럼은 빅이슈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한국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현지화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존 버드 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 빅이슈의 차별화 전략 사례, 사회적 목적성 추구를 상기하는 주장, 등이 적절히 조화된 이번 포럼은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한국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본 포럼의 주제가 영국 빅이슈가 갖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요 설명이 주된 것이었기에 패널 토론자들과 존 버드 씨와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건과 아이디어들이 생성되는 유익한 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2)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참여 평가

·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사회적기업가, 날개를 달다" 참여

일시: 2010년 7월 27일(화) 14시

장소: 함께일하는재단 지하 1층 교육장

· 발표제목 및 내용: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연수단 소개 및 개요

연수 목적

존 버드&빅이슈 소개

연수 내용: 창간 전야제, 창간 기념 행사, 공개강연회, 빅이슈코리아 내방 워크샵, 21차 사회적기업가 열린포럼, 연수평가

■ 시사점

존 버드로부터 세계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빅이슈의 창립과 운영과정에 대한 이야기. 빈곤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빅이슈의 철학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가치. 존 버드의 방한은 단순히 해외 우수 사회적기업가를 초청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투명인간으로 존재 되어온 홈리스(Homeless, 노숙인)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회였고, 홈리스의 가능성을 사회에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사업이었다. 존 버드는 공개강연회와 열린포럼, 각종 미디어를 통해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한국 사회에 던져주었다.

9. 결론

■ 전체 평가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사업 신청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 거리의천사들의 목적 사업단이었던 빅이슈코리아는 날개달아주기 지원 사업 후 사회적기업 열린 포럼에 참가할 때에는 많은 대중매체들과 시민들이 주목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사업으로 초청된 영국 빅이슈(The Big Issue)의 창립자 겸 대표인 존 버드(John Bird)의 방한은 빅이슈코리아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존 버드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필로 편지를 써 빅이슈코리아의 창간을 함께 응원하자고 호소했고, 서울시장은 7월 5일(월) 창간 행사 당일 존 버드와 빅이슈코리아 대표단을 서울시청으로 초청하였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존 버드로부터 빅이슈코리아 창간호를 처음으로 구매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창간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은 빅이슈코리아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덕수궁 앞에서 이어진 빅이슈 판매사원 발대식에서는 서울시 복지국장이 참석하여 존 버드와 함께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행사는 당일 SBS 8시 뉴스와 MBC 9시 뉴스 등 주요 언론 매체에 중요한 이슈로 소개가 되었다. 이와 같은 홍보 효과는 빅이슈의 창립자이자 대표로서 영국의 제국훈장까지 받은 존 버드가 방한한 덕분이다. 즉,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해외초청연수 프로그램이 있어 가능했던 결과이다.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7월 4일(일) 존 버드는 창간 전야제에서 예비 빅이슈 판매사원들과 직접 만남의 장을 열고 예비 빅이슈 판매사원들에게 용기를 주며 격려했다.

이 자리는 예비 빅이슈 판매사원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큰 자극제가 되었다. 또한 7월 5일 창간 행사 날에는 공개강연회를 열어 자신의 인생 스토리와 빅이슈의 철학을 한국 사회에 전하였다. EBS 지식채널 e(창간 다음 주 지식채널 e 에 'Working, Not begging' 이란 제목으로 빅이슈가 소개되었다.) 등의 여러 미디어 관계자들과 빅이슈코리아의 재능기부자들,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 등이 참석하여 빅이슈가 가진 가치를 공유하였다. 창간 다음날, 존 버드는 빅이슈코리아 사무실에 내방하여 빅이슈코리아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빅이슈코리아 직원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빅이슈 글로벌 네트워크와 긴밀한 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날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주최한 제2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은 빅이슈 대표 존 버드 초청 포럼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잘 키운 사회적기업 하나, 열 나라 바꾼다!' 로, 빅이슈(The Big Issue)를 통해 본 사회적기업의 global application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빅이슈코리아의 사례를 통해 해외에서 성공한 사회적기업의 국내 도입 모델에 대한 이야기와 국내 사회적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로 발전해나가는 이야기 등 사회적기업에 대해 좀더 넓은 시각으로서 성찰할 수 있었다. 또한 한겨레와 시사IN 등 대중매체를

통해 존 버드와 빅이슈의 가치가 담긴 철학이 한국 사회에 소개될 수 있었다. 존 버드가 영국에 돌아간 후에도 방한 효과는 이어졌다. MBC TV 김혜수의 W에서는 직접 영국으로 찾아가 빅이슈와 존 버드를 취재했으며, 이어 여러 미디어를 통해 빅이슈의 가치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내의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해외초청연수 빅이슈 창립자 존 버드의 사례를 통해 사업 목적 가치의 중요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정보 공유 및 협조, 각 지역에 맞는 현지화의 노력이 가지는 파급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선보인 빅이슈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자금이 풍요롭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단에게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해외초청사업 지원은 '빅이슈코리아'라는 가치를 공론화 할 수 있는 큰 연결 고리가 되었고,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앞으로도 빅이슈코리아가 거둔 성과처럼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해외연수사업을 통해 국내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함께일하는재단에서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이 사업을 후원해주신 사랑의열매와 SK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10년 11월 29일
발행인 | 송월주
발행처 | 함께일하는재단 Tel. 02)338-0019, 330-0720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함께일하는재단 6F
디자인 · 인쇄 | 인디엔피 Tel. 02)720-0864
* 책자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